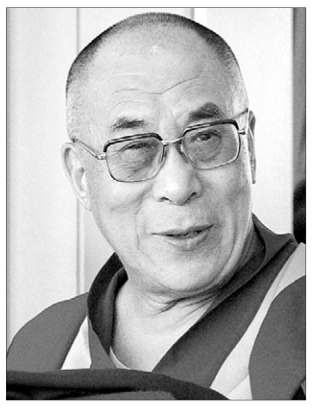
해외 WORLD

"티베트 문제 상식적으로 대응하라"

달라이 라마 성명… 中 외교부 "거론할 가치 없다"


달라이 라마.

3월 10일 티베트 무장봉기 50주년을 맞아 티베트 평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던 달라이 라마가 이번에는 중국 지도부를 향해 "좀 더 상식적인 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는 현지시간으로 3월 11일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법회를 가진 뒤 "이제 중국 지도부가 티베트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상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는 영원하지 않으며 미래는 밝다"며 "중국 지식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려와 동정심을 보였으며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달라이 라마는 3월 10일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은 티베트인을 깊은 고통과 압제 속으로 몰아넣었고, 티베트 인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수 만명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자오쉬(馬朝旭)는 "진실이 뒤바뀐 거짓말은 다시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 "티베트는 농노 해방 이후 50년간 눈부신 번영, 발전, 평화를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P통신은 3월 10일 티베트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쓰촨(四川)성 주자이거우(九寨溝)와 황룽(黃龍)에 대해 외국인은 물론 홍콩·대만인의 관광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랑무쓰(郎木寺)로 유명한 간쑤(甘肅)성 루취(碌曲)현은 내·외국인 모두 출입이 금지됐다.

이나은 기자

불교와 공존 주장 무슬림 女운동가 '피살'

태국 남부 분리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무슬림 출신의 여성 인권운동가가 분리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불교국가인 태국 남부 국경지역의 분쟁 종식이 멀어질 전망이다.

국제인권단체 더휴먼라이츠와치(HRW)는 3월 19일 "태국 남부 무슬림 우세지역에서 불교도와 무슬림의 평화 공존운동을 펼치던 라일라 파이테 다오가 방콕에서 750㎞ 떨어진 얄라주(州) 크롱페낭 지방에서 12일 대낮에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고 밝혔다.

라일라는 말레이 무슬림들과 태국 불자들의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남부 국경지대 '여성과 평화그룹', 어린이인권단체 '룩리앙'에서 활동을 해왔다. 라일라와 그녀의 가족들은 태국과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무슬림 무장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왔으며 큰 아들은 2004년, 남편과 둘째 아들은 2006년도에 각각 분리주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살해됐다.

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담당 국장은 "라일라의 죽음으로 불교도와 무슬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손실을 안겼으며 그녀의 목숨은 분리주의 단체들이 평화를 위해 태국정부에 협력하는 무슬림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잔인하게 이용됐다"며 "라일라 가족들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없이 남부 무슬림 공동체 지역에 공포를 확산시키는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금니 화엄경 展

원응 스님 중국서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은 3월 15~24일 중국 상해 옥불선사에서 '금니 화엄경 전시회'를 개막했다. 15일 개막식에서 원응 스님이 상해시불교협회 회장 각성 스님(옥불선사 방장), 서암정사 주지 법인 스님, 상해시 대외교류협회 부회장 정가요 비서장, 하현봉 한국총영사관 영사, 주상해 상해한국문화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성우 기자

제주 첫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첫 삽

약천사, 3월 17일 자광원 착공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는 3월 17일 제주도내 불교계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될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설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시각장애와 같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불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약사여래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최초로 들어서게 된다.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는 3월 17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제주 약천사 자광원' 설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을 비롯해 공사를 시행하는 덕성종합건설(대표 오덕성) 관계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6개월여 대작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200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로부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설립을 허가 받은 약천사는 대적광전 인근에 들어설 자광원을 전통양식을 가미한 전통기와가 올려진 외형으로 설계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공사비는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9억8000만원을 지원받으며 별도의 토목공사비, 조경비, 설비비 등은 약천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약천사는 자광원이 전통양식의 기와지붕으로 건립되면서 추가되는 기와비용도 직접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사찰단위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는 불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 약천사 자광원의 설립에 제주불교계와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다.

성원 스님은 "약천사의 4대 활동목표(불법홍포, 사회교화, 요익중생, 동성불도) 중 요익중생(중생을 이롭게 한다)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자광원 설립을 계기로 약천사 창건주 혜인 스님이 주창하고 가르쳐 온 실천적 기본이념인 약사여래의 서원을 담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의 지원금은 한계가 있다. 착공을 계기로 전국에 분포된 신도망을 정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행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자광원 운영에 동참하도록 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원 스님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포교도 펼칠 예정이다. (064)738-5000

이나은 기자

장애노인 마라톤 준비 '착착'

연꽃마을 마라톤대회사무국 현판식

연꽃마을은 6월 7일 제2회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에 앞서 3월 17일 마라톤대회사무국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6월 7일 '제2회 장애노인을 위한 2009 전국 효(孝)사랑 마라톤 대회' 개최를 앞두고 3월 14일 바라밀노인요양원에서 마라톤대회사무국 현판식을 봉행했다.

지난해 노인복지시설로는 최초로 하프마라톤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효(孝)사랑 마라톤은 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하는 병든 노인들을 내 부모님처럼 이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동체대비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행사"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회장 각현 스님을 비롯해 이수영 마라톤조직위원장(죽산체육회장), 장철중 교수(대구대), 김완기 선수(前 마라톤 국가대표), 이수열 발행인(마라톤타임즈), 연꽃마을 산하시설 시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회를 맞이한 '효(孝)사랑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처음 시작됐을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노인의 복지증진과 효의 사회화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대회 종목은 하프(21.0975㎞), 10㎞, 5㎞ 3종목이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념품과 완주메달, 기록증이 제공되며, 종목에 따른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접수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031)671-3677, www.lotusmarathon.co.kr

이나은 기자

붓다의집 갓바위치매센터서 봉사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 임직원들 사랑 나눔

2006년부터 꾸준히 노인요양시설에 기부를 하고 봉사해온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 식구들이 물리치료실을 청소하고 있다.

고환율, 주가하락으로 금융공황이 심화되는 요즘, 한 증권사 지점이 3년 동안 꾸준히 노인요양시설에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와 잔잔한 감동을 더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대구지점(지점장 김용구) 임직원 일동은 3월 14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감천복지재단(이사장 오정) 부설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붓다의 집 갓바위치매센터'에 방문해 청소봉사 활동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매 분기 마다 방문해온 그들은 '매칭그란트(직원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해 모금한 금액과 회사가 동반 기부하는 사내 기부 프로그램)'로 모은 기부금을 해마다 500만원씩 전달해왔다.

갓바위치매센터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 임직원분들은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해 방청소, 잡초뽑기, 빨래 등 궂은일을 도맡아 최선을 다한다"며 "그분들이 오면 시설의 묵은 때가 확 벗겨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김용구 점장은 "봉사가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람도 있다"며 "5명의 적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단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보람을 느껴 뿌듯하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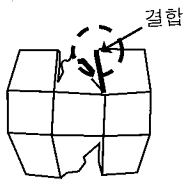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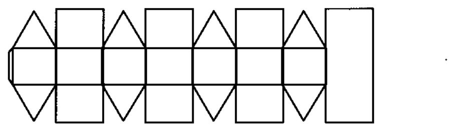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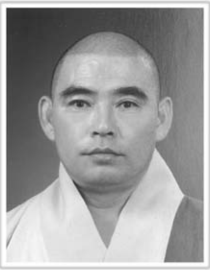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016-552-9360
(043)877-8236 011-9790-4788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010-5656-39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